

“뜻깊은 겨울계절학기 봉사활동” - 한그루녹색회에서 맺은 봉사활동의 인연



숲, 자연, 우리의 순환형 사회 만들기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방학기간에 한그루녹색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번역에 관련된 일을 맡았습니다. 방학기간에 조금이나마 보람된 일을 하고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여러 자원

의 원천이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숲에 관한 지식과 이와 관련된 환경단체에 대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주로 일본의 삼림환경 분야에 관한 번역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라인 또는 인터넷에서 숲의 환경을 알리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실제로 이를 적용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하루 한 번의 클릭으로 잎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잎이 모이게 되면 나무 한그루가 탄생합니다.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 나무는 실제로 뉴질랜드 부근의 한 섬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나무를 심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관심 하나하나가 또 다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순환형사회” 만들기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사회가 바로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날이 산업화되어 도시화가 가속되는 현상은 물론 우리에게 당장 생활의 부와 안락함을 선사해줍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연을 경시하여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면 크나큰 재앙이 다가올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할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한그루녹색회도 “우리”가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단체로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기뻐고 여러 지식을 습득하여 숲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숙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이미숙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 이옥재 / 동국대학교 일어일본학과 2학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계절학기 봉사활동

2학년을 마치면서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내고자 한그루녹색회에서 겨울학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한그루녹색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몰랐다. 첫 오리엔테이션 때 한그루녹색회를 찾아오는데 산림청 안에 있어서 그런지 잘 가꿔진 나무와 숲이 너무 좋았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공기도 좋았고, 꼭 소풍을 오는 기분이었다.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도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사실 시민단체는 고등학교 때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전부였고, 직접 참여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하였다.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행히 간사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것 같았다.

내가 봉사활동을 했던 한그루녹색회는 우리 숲과 나무,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이다. 숲 보존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행사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나무와 숲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나무와 숲에게 항상 많은 것을 받기만 한 것 같다. 숲 곳을 제공하고, 열매를 제공하고, 종이부터 집까지 우리 삶의 부분에서 나무가 빠지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일들을 그동안은 너무 당연하게 받았던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아껴주고 지켜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봉사활동으로도 많은 것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봉사활동의 기회가 생기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그루녹색회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은 기쁜 방향이었다. 기회가 되면 또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고 싶다.

(글 · 장동민 / 동국대학교 사학과 2학년)